

세계지방자치동향

(특집호)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: 기후변화와 탄소중립

- 독일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
- 미국 분권과 균형발전: 미국 기후변화 거주 지역 이동(climate-related migration)
-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GX(Green Transformation): 에너지 수급과 민생대책
- 일본 일본 지자체의 탄소중립도시 현황 및 시사점
- 일본 일본, 탄소중립과 지방창생의 선순환
- 중국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베이징의 추진 사례
- 호주 2050 탄소 배출량 순제로(Net Zero Emission) 달성을 위한 호주 지방정부의 대응

Global Trend

2022. 07.

제36호(특집호)



2050 탄소 배출량 순제로(Net Zero Emission) 달성을 위한 호주 지방정부의 대응

○ 개요

-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약,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체결하는 등의 범지구적 대응을 펼침
- 특히,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에서는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
- 호주의 지방정부(Local Government)는 연방정부와 주 및 준주정부의 목표와 동행하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목표를 선회하는 선도적인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함

○ 호주의 지방정부 현황 및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

- 호주에는 총 527개의 지방정부가 있으며, 전체 인구의 89%가 도심지역(Urban Area)에 살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임
- 호주 지방정부 권한의 범위는 관할 주 및 준주 의회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정의되는데, 보통 도시계획, 토지 이용 및 건물 승인, 기반시설(지역 도로, 보행자 도로, 자전거 도로, 표지판 및 조명 포함), 폐기물 관리, 지역사회 건물 및 시설(도서관, 문화시설, 공원 등) 및 지역사회 서비스(보육 및 노인 돌봄 등)에 대한 책임을 포함함
- 이렇듯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및 주민과 가장 가까운 차원의 정부로, 지역사회 문제 및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보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및 대응하며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화된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먼저 대응하며,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음
- 따라서,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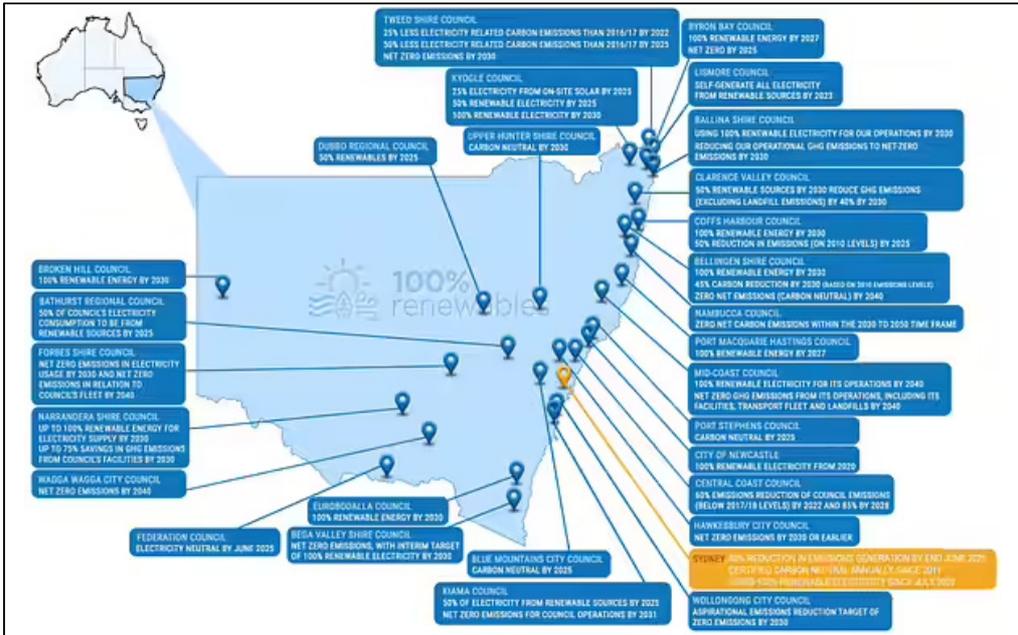
○ 호주 지방정부별 감축 목표

- 호주의 경우, 연방정부와 주 및 준주정부는 2050년까지 Net Zero Emission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지방정부 또한 개별적인 목표 설립 및 시행하고 있음
- 다음은 지방정부 중 주도(Capital Council)인 지역의 2050 Net Zero Emission 목표로, 지역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

| 표 1 | 주도 지역의 배출량 순제로(Net Zero Emission) 목표

지방정부	감축 목표
호주 수도 준주 (ACT)	• 1990년 배출량 대비 2020년까지 40%, 2025년까지 50~60%, 2030년까지 65~75%, 2040년까지 90~95%, 2045년까지 100% 감축
아델레이드 (Adelaide)	• 2025년까지 탄소중립
브리즈번 (Brisbane)	• 2017년부터 탄소중립 • 2031년까지 에너지, 폐기물 및 운송으로 인한 가정 평균 탄소 배출량 연간 6톤
다윈 (Darwin)	• 2030년까지 정부 소관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(Net Zero) • 2040년까지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 지원
호버트 (Hobart)	•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정부 소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20% 감축
멜버른 (Melbourne)	• 2040년까지 멜버른 광역도시권(Municipality)의 순 배출량 제로
시드니 (Sydney)	• 2035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

- 또한, 2021년 12월 기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지방정부의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살펴보면, 같은 주 내에서도 각 지방정부는 개별적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

출처: 100% renewables 홈페이지

| 그림 1 | 뉴사우스웨일스 지방정부의 순 배출량 제로 목표

○ 호주 지방정부 배출 감축 사업

- 호주 지방정부의 배출 감축 세부 목표는 크게 운영(Operation) 측면의 Net Zero 목표와 커뮤니티(Community) 측면의 Net Zero 목표로 구분됨
- 운영 측면은 지방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폐기물 관리 및 시설, 인프라 및 차량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함
- 한편, 커뮤니티 측면은 정보 및 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와 활동 장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함
- 이러한 운영 측면의 목표와 커뮤니티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사업으로는 ACT 정부의 Zero Emission Vehicle Plan과 아델레이드 정부의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제도(Sustainability Incentive Scheme, SIS) 등이 있음
- ACT 정부의 Zero Emission Vehicle Plan을 통해 2019~2020년 새로 임대되는 정부 관용차량의 최소 50% 이상을 무배출 차량으로 하며, 2020~2021년부터는 새로 임대되는 모든 정부 관용차량을 무배출 차량으로 할 예정임

- 아델레이드 정부의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제도는 가정과 기업이 태양광 시스템, 에너지 저장 시스템, LED로의 교체,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, EV 충전기, 아파트 업그레이드, 빗물 탱크, 건물 등급 및 탄소중립 인증과 같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로, 태양광 설치만으로도 추정되는 절감된 배출량은 2019~2020년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책임졌던 배출량의 15%인 것으로 나타남

○ 시사점

-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또는 관할 주 및 준주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동조하면서도 선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중장기목표 설정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
- 동시에, 다른 지역과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
-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 내는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

○ 참고자료

- ClimateWorks Australia. (2020). 「Net Zero Momentum Tracker: Local Government Sector」.
- 100% renewables. <https://100percentrenewables.com.au>
- Cities Power Partnership. <https://citiespowerpartnership.org.au>
- ACT government. 「ACT Climate Change Strategy 2019-2025」.
- City of Adelaide. 「Carbon Neutral Strategy 2015-2025」.
- City of Brisbane. 「Clean, Green, Sustainable 2017-2030」.
- City of Hobart. 「Sustainable Hobart Action Plan 2010-2025」.
- City of Darwin. 「2030 Climate Emergency Strategy」.
- City of Melbourne. 「Emissions Reduction Plan for Council Operations 2021-2026」. City of Sydney. 「Sustainable Sydney 2030」.

김슬기 통신원

rta3543@naver.com